

'세월호' 수사 전방위 확대

여객선 참사 나흘째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사망	32명
실종	270명



NEWSis ()

세월호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사진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아이오피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안보,정보,국방의 컨트롤 타워. 자연재해는 아니다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김영오씨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불과하다"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노리고 농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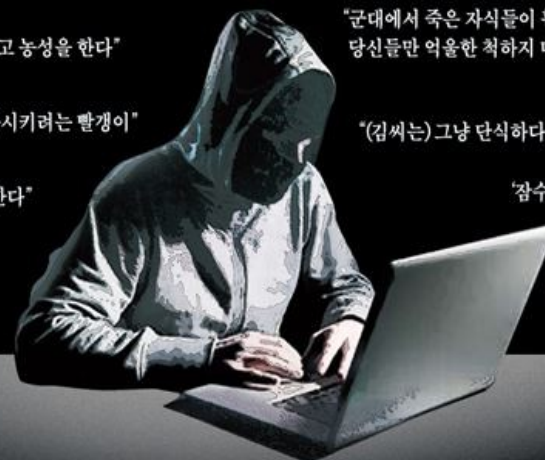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빨갱이"

"시체 장사를 한다"

"군대에서 죽은 자식들이 훨씬 많은데
당신들만 억울한 척하지 마라"

"(김씨는) 그냥 단식하다 죽으라"

'잠수함 충돌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자**”

세월호참사 이전의 사회와 단절하라! 세월호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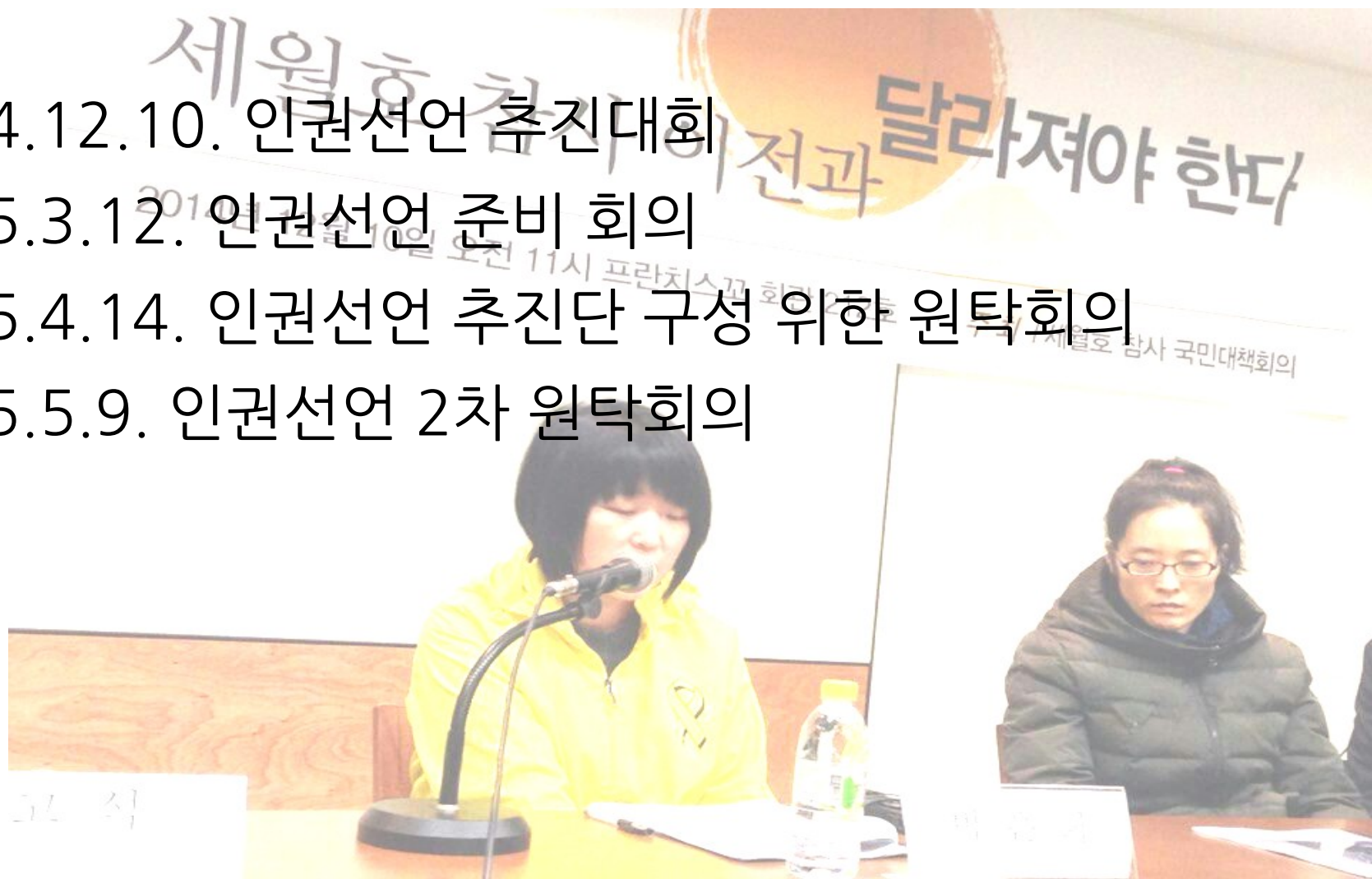
416인권선언운동은 ...

-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
- 우리가 빼앗긴 권리,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 우리 스스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밝히는 운동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개요

- 인권선언운동을 준비하다_~2015.5.

- 2014.12.10. 인권선언 추진대회
- 2015.3.12. 인권선언 준비 회의
- 2015.4.14. 인권선언 추진단 구성 위한 원탁회의
- 2015.5.9. 인권선언 2차 원탁회의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개요

- 인권선언 추진단 모집_2015.6.

416인권선언
추진단
모집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2015.6.20.

전국 각지 풀뿌리토론 및 인권교육 진행

2015.7~10.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개요

- 인권을 함께 쓰자_2015.7~10.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2015.6.20.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이 그 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이 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 부려져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문래가 임박하여 지그한 열마음은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을 반대하여 호소하드 록 강요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의 여러 헌장과 선언에서 기보한 인권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존수의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호과적인 인정과 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동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 제삼차 회의 제 217A호 결의안 제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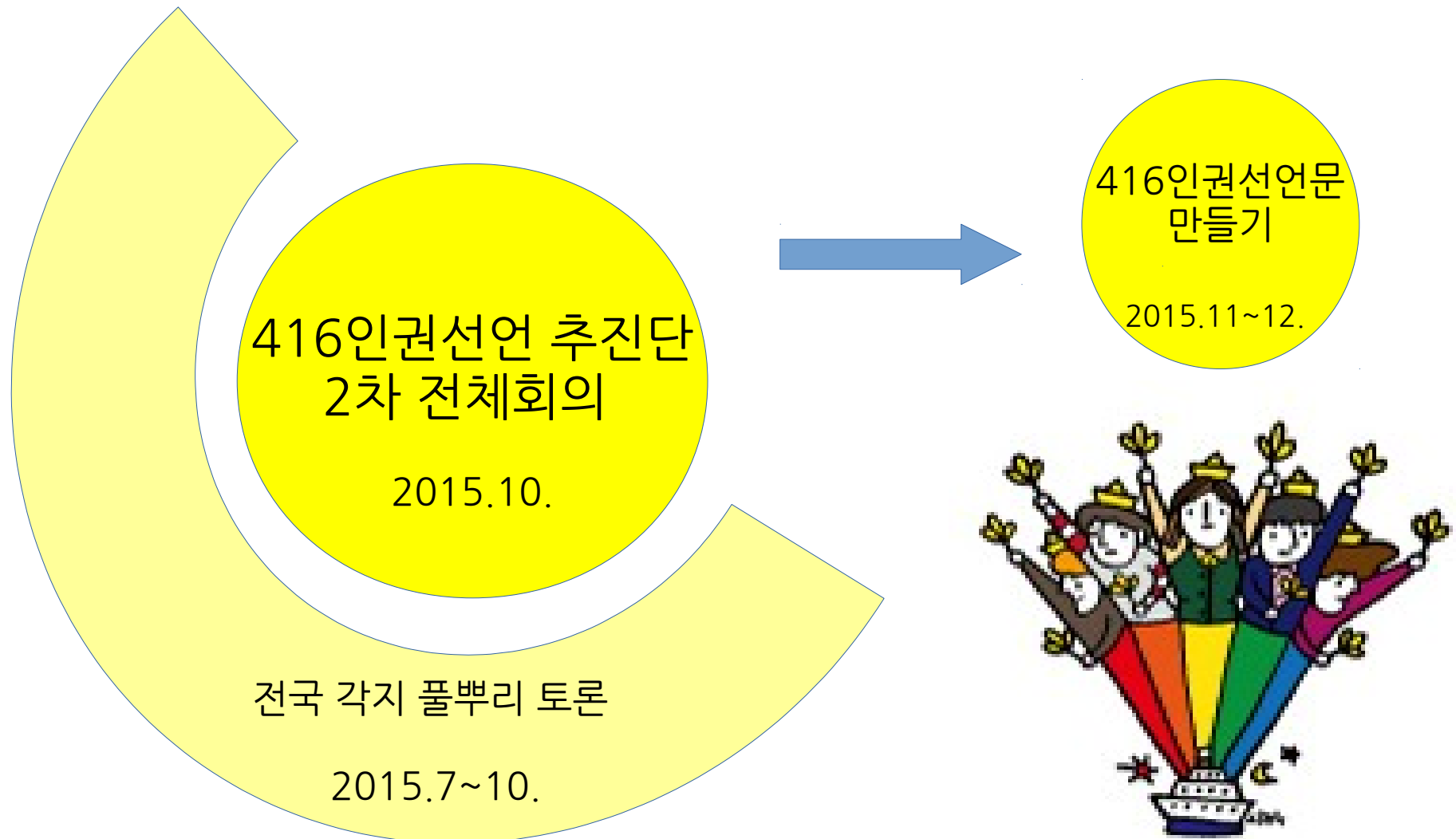
추진단 모두가
각자의 지역과 부문에서
풀뿌리토론을 열어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밝힙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
2차 전체회의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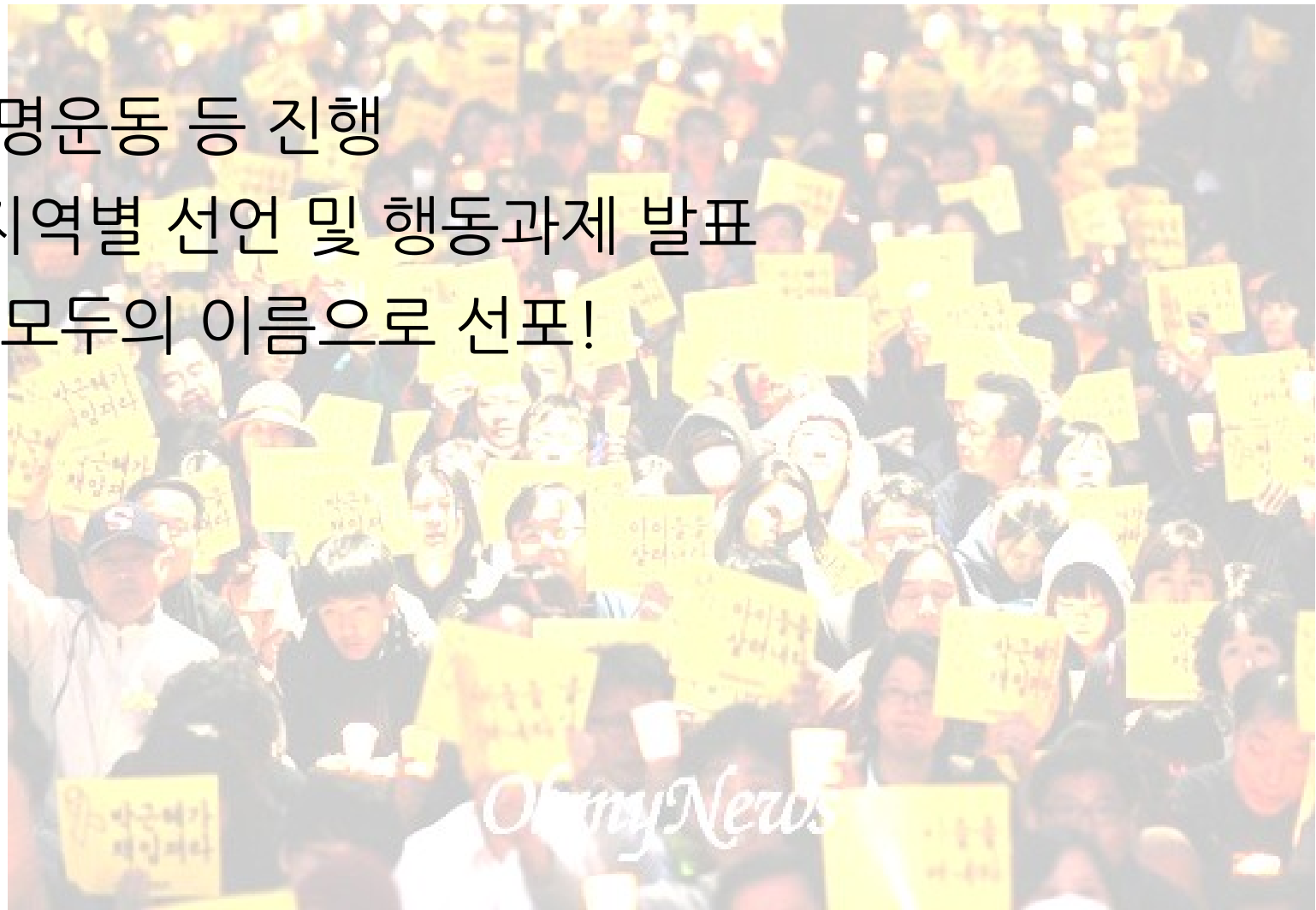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개요

- 인권선언문 만들기_2015.11~12.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개요

- 우리는 선언한다_2016.1~4.
 - 범국민서명운동 등 진행
 - 부문별, 지역별 선언 및 행동과제 발표
 - 2016.4. 모두의 이름으로 선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던 당신,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선언할 것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이기 위해,
풀뿌리토론을 열어줄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은 2회의 전체 회의에 참여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소 1회의 풀뿌리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 1차 전체회의가 6월 20일(토) 오후 1시에 열립니다.

416인권선언 추진단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은 6월 13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응답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416인권선언 추진단 함께해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